

합격기
[2011년 제55회 행시 재경직 합격]

맨땅에서 헤딩하기



정 성 훈

- 1984년 생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졸업
- 2011년(제55회) 행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1년 행정고시 재경직렬에 합격한 정성훈입니다. 벌써 합격자 발표가 나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연수원 올라오는 길이 단풍으로 우거지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이 다시금 발표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며 내년을 노리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고시계에 매달 올라오는 합격수기를 복사해서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공부에 참조하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합격수기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공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 고시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격수기를 쓰는 지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알아주실 것은 제가 지금 합격을 한지 만 1년가량이 지나 구체적인 공부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써 보겠지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마시고 마음가짐이나 자세 등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재경직으로서 일반적인 합격생과는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전공이 아니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일도 없습니다.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행정고시에 대해 들었던 일도, 생각해본 일도 없었으며 오로지 학원 수업을 통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고시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2009년 4월~12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신림동에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가 없었기에 일단 학원 수업을 착실히 따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법 강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학원 강의를 듣고 책을 혼자 읽고 녹음을 해온 학원 강의를 다시 들으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과전공으로서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에 대한 이해는 순조로웠지만 기타 행정법,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최대한 이해를 하며 “체계”를 잡으려고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2순환까지 학원 강의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나태해 지고 진도가 자꾸만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의 모든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1순환까지는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면 2순환부터는 “정리”와 “암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한 과목들은 1순환부터 정리와 암기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는 저의 공부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2009년 12월~2010년 2월

2차 공부에 재미를 느껴가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 PSAT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다른 분들이 1차 공부에 전념하는 이 기간에 저는 PSAT에는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차 공부를 하면서 1차는 쉽게 붙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PSAT은 기출문제와 모강 몇 개본을 푸는 정도의 준비에 그쳤고 저의 오만함 탓에 결국은 PSAT시험장에서 좌절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1차공부부터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3. 2010년 2월~4월

PSAT에서 사람들이 범블저널 등에서 예측하는 합격선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3순환을 수강하며 2차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3순환을 듣고 매일 시험을 치르면서 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시험을 보다보니 저의 부족한 부분이 알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감도 잡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3순환을 들던 중 PSAT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대로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3순환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본기를 제대로 쌓아 다음해에 다시 준비된 상태로 도전해 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이 때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시험 준비만을 위한 공

부를 계속하였다면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 해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2010년 4월~10월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 2차 실력을 얼마나 쌓느냐가 다음해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쉼 시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불합격의 시련은 일주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일주일 후 다시 신림동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0월까지의 학원 순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풀이연습(계산 틀리는 것 줄이기, 문제 유형 익히기, 답안 예쁘게 작성하기)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행정학은 제일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그 해에 새로 학원가에 들어오신 박경효 교수님의 강의를 예비순환부터 2순환 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법은 강의도 들었지만 책을 많이 읽으며 체계를 익히는 데 집중하였고, 답안지에 쓸 판레나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5. 2010년 10월~2011년 2월

작년에 1차에서 데인 경험이 있어 올해는 10월 중순부터 1차 시험에 집중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하였는데, 모강을 같이 풀고 맞춰보고 논리 문제나 계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논리학 책을 읽고 계산 연습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지라 이번에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각종 상

황을 가정하여 연습을 하였고 피곤한 상황에서 보기도 하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는 등 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연습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연습 앞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1차 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 2011년 3월~2011년 6월

3순환 수업을 들으며 매일 시험을 보고 스터디를 통해 시험을 하나씩 더 봅니다. 6월말 시험 볼 때 까지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고 작년에 정리한 것들을 시험 볼 때까지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 전에는 10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시험장에서는 제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현출하자고 생각했습니다.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약 1달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싶어서 아는 사람도 없는 대학교에 가서 재정학, 행정학 강의를 청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차 합격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IV. 과목별 공부방법

1. 경제학

경제학은 제가 수험기간 내내 가장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과목입니다. 경제학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답안지 구성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몇백제 류의 문제집 정도의 문제면 고시에 나올

만한 문제의 유형은 모두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고시 시험이 점차 기초적인 것을 묻는 질문이 많은 만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많이 읽고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초반에 저를 많이 괴롭힌 과목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아 저를 합격시켜 준 일등공신이 된 과목입니다. 초반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계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답안지에 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판례의 중요한 문구를 판례의 자구 그대로 외워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답이 틀린 질문이 많이 있었지만 판례를 많이 쓴 것이 행정법 고득점의 주요 원인이었나 생각합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고시생활 내내 저를 괴롭힌 과목입니다. 1차를 떨어지고 행정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뒤 박경호 교수님의 행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행정학을 방어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점수를 잃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창의적인 답안을 통해 고득점을 노리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문제

에 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례도 나만의 사례를 들기 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례를 위주로 평이하게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수험전략상 행정학을 방어과목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하였으므로 혹시 전략과목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히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저는 김진욱, 황종휴 선생님 수업을 모두 들으면서 이준구 교수님 재정학에 관련 자료들을 단권화 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는 재정학을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실제로는 40점대의 저조한 점수로 하마터면 불합격 할 뻔하게 만든 과목이기도 합니다.

5. 통계학

통계학은 수리적 감각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잘 보면 고득점 할 수 있지만 계산 실수하면 저득점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앞의 확률 부분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고시계에서 흘러다니는 교과서 이외에도 확률 부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른 책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계산 실수 하지 않도록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IV. 마치며

어찌보면 식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공

부방법에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 하듯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공부하는 지 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을 완전히 이해해야 붙은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을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면서 합격수기를 쓰다 보니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반 간의 수험생활 동안 항상 저를 보살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모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고시공부 하는 기간 내내 함께 해준 희찬이, 준영이를 비롯한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들었겠지만 제 걸을 변함 없이 지켜준, 이제는 저의 아내가 될 사랑하는 은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